

바다의날 행사, 군산 전역 축제로

군산시, 현장 간부회의 개최... 새만금~은파호수공원~군산내항 불거리·즐길 거리 활용 추진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다채로운 불거리와 체험 거리를 갖춰 시내 전역을 축제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국소관과장 60여명과 함께 바다의 날 기념 행사장인 새만금 신시광장과 신치항 일원을 찾아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부회의는 해양수산과의 총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계획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 운영지원 등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가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와 함께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군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만큼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시는 바다의 날 기념주간 동안 주행사장 신시광장 뿐 아니라 신시도

어촌체험마을과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은파호수공원까지 시 전역을 축제장으로 꾸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역대 바다의 날 기념식 중 가장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해수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산물축제, 해양 안전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시도 수산물축제, 노마드 축제와 같은 즐길 거리를 통해 항구도시 군산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청 윤경탁 주무관 '지방세 징수' 발표 우수상

군산시청 징수과의 윤경탁 주무관이 '2017 전북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체납지방세 징수외지 고취 및 선진화된 징수 기법 발표회와 우수사례 발표회 등에서 군산시청의 윤경탁 주무관이 '건 강보험료 환급금 압류를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 사례를 통해 우수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 주무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 발굴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정책 등을 추진해 체납세 징수를 제고에 힘써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동양물산기업 현장행정 펼쳐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익산 왕궁농공단지 내 동양물산기업(주)을 방문하여 운여두 부회장과 면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시장은 이번 현장행정을 통해 익산시에 투자하여 모범적으로 고용창출과 인구진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준 동양물산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생생현장을 둘러본 후 구내식당을 찾아 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격의 없는 대화와 노고를 격려하고 시와 노사가 화합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동양물산 관계자는 "신규 관리직과 생산직 근로자 채용 시 관내 대학 출신과 익산 거주자를 1순위로 고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1일 오전 익산 왕궁농공단지 내 동양물산기업(주)을 방문하여 운여두 부회장과 면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업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며

"익산시와 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좋은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복지위, 미세먼지 간담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련 심각성과 시차원의 저감대책을 듣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승원 녹색환경과 장으로부터 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듣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미세먼지특성분석 및 관리 대책수립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 원인 규명을 통해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연 위원장은 그간 미세먼지 저감 추진에 따른 보고를 받고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를 통해 발생원인별 저감 대책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시가 미세먼지 저감 수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하림 삼계탕, EU시장 도전 준비작업 순조

현재 수출 작업장 지정 절차 돌입... 러시아·몽골·대만·캐나다 추진 중

하림 삼계탕이 미국과 중국 수출에 이어 EU(유럽연합)시장에 도전한다.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한류의 대표적인 음식인 삼계탕을 EU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하림 삼계탕은 지난해 5월 27일 EU 수출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재 EU FVO(식품수의사무국)의 본 심사 과정인 수출 작업장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주)하림은 QA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TTT는 정부와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수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식품체인 이력추적 프로그램, 이력추적 세부 증빙자료 등 세부적 서류를 작성해 EU 수출 작업장 지정 신청을 했으며, 이어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식약청, 지자체 축산과와 함께 작업장 심사를 진행했다.

작업장 심사는 닭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부터 도계·가공 공장까지 이르는 공정별 단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HACCP과 SSOP 등 안전한 식품 생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가공 단계에 있어서는 공정 이

력추적 등에 대한 세부적 심사를 통해 삼계탕 EU수출 환경에 맞도록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실행에 집중했다.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하림은 1995년 처음 일본에 수출한데 이어 2014년 미국, 2016년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등 현재 7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559톤 321만 달러어치를 판매했다.

한편 하림은 EU시장 외에도 러시아, 몽골, 대만, 캐나다에 삼계탕을 포함한 기타 열처리 가공 제품 등 수출제품 다변화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올해 3월 해당국에 수출 희망을 표명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대, 국립대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우수'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7년 국립대학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39개 국립대를 규모별로 구분해 인사행정 인프라와 승진·보상·보직관리 운영,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특성화, 향상도 등 5개 영역을 면밀하게 평가한 결과이다.

군산대학교는 대학회계직원 기획력평가 100% 참여, 업무경험 및 연차 연계 형성을 위해 기획한 교무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 자연거장에서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소 학업에 지친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 버리고, 불바람을 가르며 진취적인 호연지기를 기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군산시에서 준비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 깃발을 자전거에 달고 은파호수공원

에서 캠페인을 펼쳐 은파를 찾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청소년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사)자전거타기운동연합 군산지부(나기택 회장)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정훈관장) 주관과 군산시 후원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군산의 아름다운 자연거장과 지역명소 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자전거 대행진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 454-3632)와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451-7942)에서 수시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 '청소년 자전거대행진' START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자전거의 날'인 지난 22일, 「2017 군산시 청소년 자전거대행진」의 첫 번째 행사가 막을 올렸다.

군산시가 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은파호수공원 자연거장에서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소 학업에 지친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 버리고, 불바람을 가르며 진취적인 호연지기를 기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군산시에서 준비한 학교폭력 예방 홍보 깃발을 자전거에 달고 은파호수공원

에서 캠페인을 펼쳐 은파를 찾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청소년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사)자전거타기운동연합 군산지부(나기택 회장)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정훈관장) 주관과 군산시 후원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군산의 아름다운 자연거장과 지역명소 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자전거 대행진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 454-3632)와 군산시청소년문화의 집(☎ 451-7942)에서 수시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금강철새조망대 오늘 재개관

시 위기경보 하향 조정 따라

군산금강철새조망대가 4개월간의 임시휴관이라는 긴 잠을 깨고 재개관을 알리며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군산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무기한 임시휴관에 들어갔던 금강철새조망대가 4월 24일부터 재개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 환경정책과는 지난해 12월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과 농가피해 확산방지, 철새조망대에서 사육중인 조류 보호를 위해 금강철새조망대 및 금강철새

조망대 출입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이후 AI의 추가발생이 없었으며 최대 21일의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가창오리 및 쇠기러기를 비롯한 겨울철새 대부분이 북상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9일자로 AI의 위기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강철새조망대의 재개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강철새조망대는 재개관을 위해 보관중인 생물표본의 수리 및 훈증소독 등 전시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생태연못·영사관·식물생태관 정비와 전기·소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점검 준비를 마쳤다.

/군산=장현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